

볼리비아, 사회주의 개헌안 통과 유력

- 지난 1월 25일 실시된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주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사실상 통과가 유력
 - 볼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약 60% 안팎의 찬성률로 개헌안 국민투표가 통과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, 볼리비아 선거법원 또한 개헌안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종 집계 결과가 발표되려면 수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

-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사회주의 개헌안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분배를 통한 농업개혁 등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인정하고 원주민의 권익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

볼리비아 개헌안 주요내용

- 국가의 경제 개입 확대
 - 전략적 중요성을 띤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이 대폭 확대되며, 천연자원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, 공공의 필요가 있을 경우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 가능

□ 천연가스 개발관련 권한 강화

-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한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, 아울러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를 포함한 다국적 에너지 기업은 천연가스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교경로를 통한 이의 제기만 허용

□ 원주민 등의 지방자치 확대

- 주정부, 시정부, 원주민 부족 등 3개 단위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며, 주정부는 사법권 일부를 행사할 수 있으나 재정, 외교, 에너지 및 안보와 관련한 사항은 연방정부에 귀속
- 아울러 30개 원주민 부족들의 토지 소유권이 확대되고 자제적인 사법시스템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의회에도 자신들의 원익을 대표하는 의원선출이 가능

□ 대통령 임기

-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 모랄레스 대통령이 금년 12월 6일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를 두 차례 거친 것으로 간주돼 2014년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

□ 사유지 보유حد도 규제 강화

- 토지 소유는 경제적, 사회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, 비생산적인 토지는 연방정부가 몰수 가능
* 개인의 토지보유 한도는 5천ha 이내로 제한될 전망

□ 코카 재배 장려

- 코카 재배를 문화적 전통으로 인정하여, 코카인은 억제하되 코카재배는 보호

□ 이번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중남미 지역에서 4개월사이 에콰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주의 헌법이 탄생

□ 그러나, 이번 국민투표의 찬성률인 60%는 '08년 8월 정·부통령 및 주지사 신임 투표 당시 현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록했던 67%의 지지율보다 낮고, 이번 정치적 의사결정의 최대 지지 세력인 원주민 세력을 제외한 유럽계 이민자 후손과 보수우파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촉발되어 국민투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는 등 볼리비아 정국의 대치국면이 심화될 조짐



<사우파울루 사무소 제공>